

보도 희망 일시	제한없음(즉시)
문의	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
	이지현 전화: 880-1231, 이메일: liz0619@snu.ac.kr

배포일: 2024.11.11.(월)

서울대 찾은 미국수의과대학협회 위원회·아시아수의과대학 협회 SNU CVM-AAVS-CIVME 공동 심포지엄 개최...전 세계 수의학교육 전문가 50여 명 참석

-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(SNU CVM, 학장 성제경)이 10월 28일(월) 서울대 수의대에서 ‘SNU CVM-CIVME-AAVS 공동 심포지엄’ 을 개최했다.
-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시아수의과대학협회(AAVS)와 미국수의과대학협회 국제수의학교육위원회(AAVMC-CIVME)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전 세계 수의학교육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.
- 아시아수의과대학협회(AAVS, Asian Association of Veterinary Schools) 학술대회 개최, 인력교류, 교육연구, 정보교류 등을 목표로 지난 2001년 서울에서 설립됐다. 박용호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가 창립을 주도했다.
- 미국수의과대학협회(AAVMC, Association of American Veterinary Medical Colleges)는 미국수의과대학학장협의회로부터 발전한 기관으로 미국수의사회(AVMA)의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협회다.

- 미국수의과대학협회는 지난 2016년, 수의학교육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제공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제수의학교육위원회(CIVME, the Council on International Veterinary Medical Education)를 설립했다.
- 관계자들은 10월 25일(금)부터 27일(일)까지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FAVA 2024(제23차 아시아태평양수의사회 총회)에 참석한 뒤 서울로 이동해 서울대 수의대를 찾았다.
- 아시아수의과대학협회는 2024년 AAVS 연차대회(제22차 회의)를 FAVA2024에서 개최했고, CIVME 관계자들도 AAVS 연차대회 및 FAVA2024 수의윤리 및 수의학교육 세션에 참석했다.
- 이날 공동 심포지엄에는 현 AAVS 회장인 서울대 수의대 성제경 교수를 비롯해 김민수 교무부학장, 허은미 학생부학장, 최강석 기획부학장, 조성범 연구부학장, 백승준 교수 등 다수의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참석했다.
- 또한, 전 AAVS 회장이었던 류판동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도 참석했다. 류판동 명예교수는 현재 CIVME의 아시아 위원장을 맡고 있다.
- 이외에도 Ted Mashima AAVMC CSO(Chief Strategy Officer), Sarah Baillie 브리스톨대학교 교수, Nayana Wijayawardhane 스리랑카 페라테니아대학교 교수, Takashi Matsuwaki 동경대학교 교수 등 각국의 저명한 학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
- 심포지엄에서는 각국의 수의학교육 관련 주요현안과 최신 연구 동향이 공유됐다.
- 참석자들은 심포지엄 이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교육 및 연구시설과 서울대학교

동물병원을 둘러봤다. 참석자들은 서울대의 수준 높은 연구 인프라에 감탄을 표하며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수의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” 고 전했다.

□ Ted Mashima 미국수의과대학협회 CSO는 “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큰 감사를 전한다” 며 “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에서 수의학교육 발전을 논의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” 고 말했다.

□ 한편, 서울대 수의대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. 서울대 수의대는 앞으로도 글로벌 수의학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국내 수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.